지난 2년간의 학회지 "신경정신의학" 심사 평가보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간행위원
오병훈 · 권준수 · 남궁기 · 김승현 · 지익성 · 김창윤 · 하규섭 · 박원명 · 김성곤
오강섭 · 김정범 · 이수정 · 정한용 · 이창욱 · 박용천 · 이영문 · 김세주

Two Years Reviewer Evaluation Reports of "Journal of Korean Neuropychiatric Association"

Byoung Hoon Oh, MD, PhD, Jun Soo Kwon, MD, PhD, Kee Namkoong, MD, PhD, Seung Hyun Kim, MD, PhD, Ik Seung Chee, MD, PhD, Chang Yoon Kim, MD, PhD, Kyoo Seob Ha, MD, PhD, Won Myong Bahk, MD, PhD, Sung Gon Kim, MD, PhD, Kang Seob Oh, MD, PhD, Jung Bum Kim, MD, PhD, Soo Jung Lee, MD, PhD, Han Yong Jung, MD, PhD, Chang Uk Lee, MD, PhD, Yong Chon Park, MD, PhD, Young Moon Lee, MD, PhD and Se Joo Kim, MD, PhD

Editorial Board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Two Years Reports of "Journal of Korean Neuropychiatric Association" during 2001 to 2003 were evaluated by 17 Editorial Board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We investigated the articles to specific fields and rejection rate etc. by different section chiefs. Although several problems concerning review time duration and rejection guideline issues indicated but generally all reviewer processes proved relatively clear and concise criteria. Through these objective and systematic evaluation processes, "Journal of Korean Neuropychiatric Association" will develope a good journal.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4;43(3): 257-264)

KEY WORDS : Journal of Korean neuropychiatric association · Reviewer evaluation.

서 론

신경정신의학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1962년 4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단 한번의 결간도 없이 현재까지 학회회원은 물론 신경정신의학 관련 종사자들에게 지식과 비젼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1662년 창간 이후 1970년, 1968년, 1999년과 2003년도에 새롭고 참신한 표지로서 신경정신의학의 발전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0년도의 KoreaMed등재 및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후보지 등재는 신경정신의학의 위상을 한단계 높여 주었으며, 향후 Index Medicus 나 SCI 등재를 위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회지의 등재는 그 어느때 보다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년간의 학회지의 평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살펴보며, 보다 나은 학회지 " 신경정신의학 "으로서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접수일자 : 2004년 3월 1일 / 심사완료 : 2004년 4월 15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Byoung Hoon Oh,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verance Mental Health Hospital, 696 - 6 Tanbul - dong, Gwangju 464 - 100, Korea
Tel : +82.31 - 797 - 5745, Fax : +82.31 - 763 - 5745
E - mail : drobh@chollian.net

지난 2년간의 학회지 '신경정신의학' 현황

2002회기에 ' 신경정신의학 '은 40권 6호부터 41권 5호까지 전체 6권이 발간되어 총 11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현재 동 회기 신규 접수된 논문은 121편으로 이 중 86편이 게재되었다. 현재까지 13편의 논문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10편의 논문은 심사가 끝나 출판대기중이고 12편은 심사 중이다.

2003회기에 ' 신경정신의학 '은 41권 6호부터 42권 5호까지 전체 6권이 발간되어 총 9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

다. 현재 동 회기 신규 접수된 논문은 97편으로 이 중 36편이 게재되었다. 현재 28편의 논문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5편의 논문은 심사가 끝나 출판대기중이고 28편은 심사중이다.

학회지 발전을 위한 공청회 및 워크샵

학회지 발전을 위한 공청회

2002년 4월 27일(토)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심포지움으로 열렸다. 특강으로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한상완 교수의 "학회지 편집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단기 및 장기발전위원회 위원장인 남궁기, 권준수 회원의 "설문조사 결과 및 추후 학회지 발전 안 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E-mail을 통한 학회지 발전을 위한 설문지 조사 결과와 함께 장, 단기 발전계획에 대한 토론 및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학진, SCI 등재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1-4]

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한 Workshop

학회지 '신경정신의학'의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한 Workshop이 2002년 11월 21일(목) 서울대학교 임상의학 연구소에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실무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덕우 선생님과 ISI 한국지사의 Associate Manager이며, Training과 Education을 담당하고 있는 황호정 선생님의 특강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5] 이 Workshop을 통해서 2003년 후보지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명료화되었다.

학회지 영문 잡지 및 온라인 잡지 발간을 위한 Workshop

학회지 장기 발전을 위한 영문 잡지 및 온라인 잡지 발간을 위한 Workshop이 2003년 7월 11일(금) 오후 1시 30분에서 7시까지 가톨릭의대 의과학 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Dr. John C Roberts, Project Director의 특강이 있었고, 영문 잡지 발간 추진계획에 대한 권준수 장기발전 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영문 잡지 발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진단방사선과 교수인 임정기 교수님의 'Korean Journal of Radiology의 SCI 등재 경험'과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요구하는 좋은 학술지 및 온라인 학술지의 발전 방향'에 대한 특강과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2004년도 '신경정신의학'의 영문 잡지 발간(2회 영문 잡지 발간) 계획으로 구체적인 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6-8]

학회지 지난 2년간 심사평가보고 및 온라인 학회지 투고심사 시스템 개발

학회지 장기 발전을 위한 지난 2년간 심사평가보고 및 온라인 잡지 발간을 위한 Workshop이 2004년 1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에서 7시까지 가톨릭의대 의과학 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이덕우 선생님의 "학술진흥재단 등록을 위한 계속 평가작업"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또한 영문 잡지 발간 구체적 추진현황에 대한 권준수 장기발전 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김주한 정보위원회 위원장의 "온라인 학회지 투고심사 씨스템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지난 2년간 학회지 심사평가보고에 대한 발표가 영문자문(이호영), 통계자문(김동기), 각 부분평가(각 Scetion Chief)순으로 진지한 토론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온라인 학회지 투고심사 씨스템 개발"은 이사회의 보고를 거쳐 춘계학술대회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현을 위한 workshop을 진행할 계획이다.[9-11]

신경정신의학 심사 평가 분석(2002~2003)

각 Section별로 진행된 발표내용을 가능한 여과 없이 정돈하면 다음과 같다.

Section 1. 기초, 생물정신의학 분야

약물연구 : 2
약물 증례보고 : 2
유전연구 : 14
생물 : 5

(1) 심사위원 : 22명

(2) 심사횟수

		가	조건부	불 가
1회	13명	5	5	3
2회	4명	4	3	1
3회	1명	0	1	2
4회	0명	0	0	0
5회	2명	2	7	1
6회	2명	7	2	3

(3) 불 가

1) 실험의 신뢰도, 가설의 검증 과정의 미흡
2) 결론의 논리성 결여
3) 연구배경 미흡,결과의 연관성 결여
4) 연구발표의 방법적인 문제
5) 성의부족 : 결과, 도표, 고찰, 통계 등의 일치 결여

6) 연구결과 판독상의 오류
7) 연구결과 판독상의 오류
8) 연구결과 판독상의 오류
9) 단순확인, 방법, 통계처리의 문제
10) 너무 길고, 반복, 중복, 산만, 정리부족, 자료제시 부족, 표 · 그림이 너무 많다. 축약과 정리가 안됨.

Section 2. 정신분열병 분야

전체 심사 논문
- 2003년 : 13편
- 2002년 : 25편
- 합 계 : 38편

2인 심사결과 보고서 중 1편 Missing : 6편
분석대상 심사결과 보고서 : 70편(2×38 - 6)

(1) 심사위원별 논문 편수
1) 심사위원 수 : 23인
2) 심사위원당 심사논문 편수 및 평가결과

심사위원	심사위원편수	가	조건부	불 가
권준수	7	3	2	2
석 균	10	3	3	4
김창윤	9	5	0	4
이중서	5	1	4	0
김찬형	4	0	2	2
김철응	5	4	1	0
김철권	1			1
김정진	1			1

(2) 심사 결과 일치도

	가	조건부	불 가
가	5 (15.6%)	8 (25%)	8 (25%)
조건부	·	5 (15.6%)	5 (15.6%)
불 가	·		1 (3%)

· 전체 논문 편수=32 · 일치율=34.2%

	가, 조건부	불 가
가, 조건부	18 (56.2%)	13(40.6%)
불 가	·	1(3%)

· 전체 논문 편수=32 · 일치율=59.2%

Section 3. 기분장애 분야

(1) 심사위원별(1차심사에서)

	Reviewer 1	Reviewer 2
1	가	가
2	가	가
3	가	조건부→가
4	가	조건부→가
5	저자수정	저자수정
6	저자수정	조건부→가
7	저자수정	조건부→저자수정
8	조건부→가	조건부→저자수정
9	조건부→가	조건부→조건부→저자수정
10	불 가	불 가
11	불 가	불 가
12	불 가	조건부(진행중)
13	저자수정	조건부(진행중)
14	조건부	(진행중)

14편 중 완전 일치 5 일차 통과 : 3/11(27%)
결국 일치 6 수정/재심 후 통과 : 6/11(55%)
진행 중 3 불가 : 2/11(18%)

	가/저자수정	조건부	불 가	Total
1	3	3	1	7
2	5			5
3		2	1	3
4		2		2
5	1		1	2
6	1			1
7	1			1
8	1			1
9		1		1
10		1		1
11		1		1
12		1		1
13			1	1

(2) 종 합
1) 통과율/거부율 : 적절한 것으로 보임
2) 심사위원별 : 비교적 적절함, 심사위원별로 다소 간 차이는 있음 : 적절한 guideline 필요
3) 심사위원 구성 : 적절한 것으로 보임, 새로운 인력 충원 필요 : 별도 추천 예정
4) 심사평 : 자세하고, 충분한 것으로 보임

Section 4. Addiction 분야

(1) 총 15편이 심사대상이었으며, 이 중 5편이 ' 불가 ' (33.3%), 5편이 ' 조건부 ', 나머지 5편만이 ' 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거부율은 아주 적절하였다고 생각됩니다.

(2) 불가 판정을 받은 5편의 논문 중에서 불가와 가를 동시 판정 받은 논문은 한편도 없었으며, 불가 판정을 받은 2편의 논문은 심사위원 2명 모두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

고, 조건부 판정을 받은 논문 5편 중 2편도 심사위원 2명 모두로부터 조건부 판정을 받는 등 비교적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불가 판정을 받은 5편의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은 총 10명(5편×2인)으로 이중에서 불가 판정을 내린 위원은 2명의 위원뿐이었습니다(4편은 김성곤 위원이, 3편은 이병욱 위원이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에게 거부율의 정도에 관한 정책을 보다 확고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로서 있을지도 모르는 심사 위원간 판정의 차이를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심사 대상이었던 15편을 심사한 심사위원 30명(15편×2인) 모두 심사결과를 정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잘 지적해 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심사위원의 심사평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심사 대상이었던 15편을 위해 의뢰된 심사위원별 심사건수는 심사위원간 심사건수가 너무 다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Section 5. 불안, 정신신체장애 분야

(1) 불안장애(9편)

1) 집단 인지행동치료가 공황장애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2) 공황장애 환자들에서 인지행동치료 및 항불안제가 세포성 면역에 미치는 영향

3) 사회공포증의 하위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

4) 사회공포증 환자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 일반형 사회공포증과 비일반형 사회공포증의 비교

5)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환자에게 mirtazapine 효과

6) 외상 환자에서 의식소실 유무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율, 증상유무,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사건관련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8)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증상 정도에 따른 인지기능의 차이

9) 치료저항성 강박장애의 약물학적 치료 및 통합적 치료 모형

(2) 정신신체장애(14편)

1) 내과 외래 환자의 정신 병리 및 정신과 자문에 대한 연구

- 내과 외래 환자의 건강 대조군의 비교

2) 만성신부전 환자의 일반적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만성신부전 환자와 만성간염 환자의 정신병리에 관한 비교연구

4) 인지적 양식 및 스트레스 지각과 월경전기 증상과의 비교

5) 생식정신의학 : 폐경주변기 및 폐경기

6) 내과 외래 환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소화성 궤양과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정신병리에 관한 비교 연구

7) 암 환자의 통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8) 소아암 환자 부모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9) 자문의뢰 의사의 정신과 자문의뢰 만족도와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

10) 비정형 항정신병약물 복용 중인 과체중 환자에서, 체중감량을 위한 행동 수정 요법의 유용성 검증

11) 비정형 정신병을 동반한 Leopard 증후군 1예

12) 비정형 항정신약물에 의해 유발된 당뇨병 증례

13) Hinman 증후군 1예

14)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기면병 1예

(3) 심사위원 13명

(4) 심사요지

1) 대상군에 대한 분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 급성 혹은 만성 환자, 포함기준, 배제 기준, 특성, 질병의 심각도, 어떤 치료 받는지, 유형에 대한 정의 등

- 혼란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2) 연구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3) 연구제목이 분명해야 한다.

4) 어떤 대조군을 선정하고, 왜 선정? 기준은?

5) 제목이 전체 내용에 부합되는지? 조사 대상 범위를 제한

6) 진정한 인지행동치료를 과연 실시하였는지?

7) 결과해석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하지 않음

8) 관련된 선행연구를 충분히 인용하고 임상적 경험을 활용

9) 결과에 대한 해석 혹은 추측이 비약. 근거?

10) 근거있고 경험적인 치료적 함의를 제시

11) 참고문헌 표기

12) 평가 척도 언제 시행하였나?

13) 평가 방법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

14) 표현이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장황하다.

15) 정확한 용어 사용

(5) 게재불가(한심사위원이라도) 7편/23편(30%)
모두 가 3편/21편(13%)
가 & 불가 3편/21편(13%)

(6) 제 안
1)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
2) 심사위원간 판정 불일치
3) 심사비 인상
4) 심사 편수 차이가 크다
5) 일부 심사위원 성의 부족
6) 전공의 논문에 대해 지도의의 철저한 검토
7) 투고규정 준수

Section 6. 소아청소년 분야

심사논문 표본수 : 25편
전체 게재 불가 : 9편(36%)
일차 심사 결과
- 가 : 9편(36%)
- 조건부 : 9편(36%)
- 불가 : 7편(28%)

(1) 심사평가 세부내용

심사평가	내 용	1차 심사	2차 심사
불 가		7	2
	불가-조건부	5	
	불가-가	2	
조건부		9	
	조건부-조건부	2	
	조건부-가	7	
가	가-가	9	
합 계		25	

(2) 심사위원별 심사 편수

심사위원	심사편수	불가편수
deg	11	4
dtw	6	0
ddt	6	0
qrg	5	3
drd	4	0
ted	4	1
teg	3	1
tat	3	0
ddd	2	0
tdw	2	0
rdt	1	0
rat	1	0
srt	1	0
rcd	1	0

(3) 문제점과 특기사항
1) 심사위원 사이에 심사 논문 편수가 크게 차이
2) 심사위원 사이에 '불가'판정을 한 논문의 비율 크게 차이 : 가/불가의 판단에 개인 사이의 차이가 클 가능성
3) 두 심사위원의 판정 크게 차이 : - 두 심사위원이 각각 '가'와 '불가'를 매긴 경우 : '불가'논문 9편 가운데 2편 - '조건부'논문 가운데도 두사람 모두 '조건부'를 매긴 경우 : 9편 가운데 2편 뿐 - 7편은 '조건부-가'의 평가를 받음 - 7편 가운데 2편은 2차심사에서 한쪽 심사위원으로부터 '불가'평가를 받음
4) 심사요지의 분량은 5행 미만으로부터 50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고
5) 심사요지 내용 : 포괄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적과 수정 사항을 언급한 경우로 다양. 대부분 불가 판정 내린 심사 요지는 구체적이고 상세함
6) '불가-가'처럼 심사위원 사이에 의견 차가 큰 경우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심사요지는 유사하지만 '가', '불가'를 판정하는데 의견이 갈림

(4) 개선방안
1) '가/불가'의 기준이 개인마다 차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에 관한 워크숍 등을 통하여 방법론을 익히고 심사위원 사이의 피드백이 필요할 것임.
2) '가/불가'를 정하는 기준과 우선순위 등 학회지 공통의 방침과 표준을 정하여 심사위원에게 공지하는 것이 도움 될 것임.

Section 7. 기질성 및 노인분야

2002~2003 총 18편
2002 : 13편
2003 : 5편

가/가	2
가/조건부	5
조건부/조건부	5
불가/가	1
불가/조건부	4
불가/불가	1
불가율	6/18 (0.33)

평 가 내 용	
심사항목	심사평가
1. 논문의 내용이 본 학회지 게재에 적합한가?	3
2. 연구목적이 독창적이고, 합리적인가?	6
3. 서론의 내용이 간결 명료한가?	5
4. 연구방법은 윤리적이며 타당한가?	15
5. 결과의 기술이 표나 도표의 내용과 효과적으로 기술되었는가?	15
6. 고찰의 전개가 논리적이며, 서론이나 결과에서 기술한 내용이 반복 되지 않았는가?	17
7. 결론은 간결하며, 공정하고 타당한가?	1
8. 영문초록은 적절한 형식을 갖추었는가?	5
9. 참고 문헌의 수는 적절하고, 기술은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는가?	12
10. 표와 그림은 중복이 없고, 투고규정에 맞게 간단명료한가?	13
11. 논문의 길이는 적절한가?	5

(1) 2인 사이에서 심사 결과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가	조건부	불 가
1		1	
2	4		
3		1	1
4	1	1	1
5	1		
6			1
7		4	1
8	1	1	
9		3	1
10		1	1
11	2		
12		2	
13		2	
14		2	
15	1		
16		2	
Total	10	20	6

(2) 주로 지적되는 사항들 : 연구방법, 결과, 고찰, 참고문헌, 표와 그림

(3) 논문심사기간 : 몇 분은 심사 기간이 늦어서 죄송하다

Section 8. 정신치료분야

(1) 논문 편수 : 5편

1) 2002 - 08 - 052(한국인의 삶의 의미에 관한 분석연구)

평가결과 가 - 1명, 조건부 - 1명

논문자체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 2인 모두 긍정적이었고 공통적으로 투고규정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심사위원 1인은 내용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며 참고하기를 권하였음.

저자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음.

2) 2002 - 08 - 075(자아초월적 정신치료(Ⅰ) : 정의, 발달과정 및 한국적 전망)

3) 2002 - 08 - 076(자아초월적 정신치료(Ⅱ) : 몇가지 치료접근 방법들)

심사위원은 이 두 가지 논문을 하나로 압축 요약할 것을 주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의논해주기를 원하였고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는 조건부의 평가결과를 내렸는데 내용상의 이해하기 힘든 점들과 저자의 판단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체적으로 두 편의 논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며 저자의 수정을 요구하였음.

4) 2002 - 08 - 103(집단정신치료 : 집단역학)

종설이므로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였음.

영어의 번역에서 세 심사위원 모두 용어번역상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다른 의견제시만 있었음. 평가결과는 3인 모두 " 가 "로 저자 수정 후 개제 가능하다고 하였음.

5) 2002 - 123 - 06(한국어판 Canners부모 및 교사용 평가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2명의 심사위원중 1명은 언급없이 " 가 "로 평가하였고, 한명의 심사위원은 내용상 미비한 부분을 지적한 후 " 불가 "로 평가하였음.

(2) 전체 소감

심사위원의 전문분야와 일치되면 매우 적극적인 심사를 하며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음. 적극적이기 때문에 peer review라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며 논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됨.

한편 엄격해지는 경향은 잡지의 원위가 높아지는 면과 함께 혹시 있을지 모를 심사위원의 실수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음. 편집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요구됨.

(3) 결 론

전문분야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가 필수적임.

심사위원과 저자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편집위원회에서는 세심한 관찰과 노력이 필요함.

(4) 대 책

심사위원간의 interrater reliability를 높이기 위하여 " Journal Review "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하여 수료를 한 심사위

원들에게 심사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음.

Section 9. **사회정신의학분야**

Period : 2001.11~2003.12
Total No. of Articles reviewed : 23
Social & Cultural Psychiatry : 10
Community Psychiatry : 13
Reviewers : 9 persons
University Staffs : 6
General or Mental Hospital Staffs : 3

	가	조건부	불 가
1	7		2
2	4	1	
3	4	1	
4		3	2
5	2	1	
6			1
7	6	4	2
8	3		
9			1

결 과

평균 불가 판정률 23편 중 8편 : 34%
불가판정률 범위 : 0~40%
3 편 이상 심사한 위원을 기준
Review 편수 범위 : 3~12 편
Reviewer 1인당 심사 논문 수
23편을 기준으로 최소 46회의 심사
현 9인 심사위원 : 평균 5.11회 3개의 논문 : 3명의 Reviewer
2003 - 013 - 09, 2003 - 042 - 09, 2003 - 048 - 09

결 론

심사위원 Review 편수와 분포를 재고
평균 불가판정률은 무난
판정률의 심사위원간 편차가 크다.

고찰 및 결론

이상에서 지난 2년간의 학회지 심사평가 보고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각 연구학회의 학회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공식잡지인 " 대한신경의학 "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방향이라는 책임감하에 다소는 무리할 정도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난 2년간의 심사평가는 중복 심사 및 심사지연 등 부분적인 단점이 지적되긴 했지만 심사위원 한분 한분이 책임감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자부하고 싶다.

현재 신경정신과는 Major 5과 중의 하나에 속함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major 5과에 당당히 위치하고 특히 의학의 발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가는 겸허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부는 아니겠지만 학회지가 하나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면 현재 KoMCI 학술지가 많이 인용하는 KoMCI 학술지에 우리는 부끄럽게도 1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Table 1).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우수한 훌륭한 인적 자원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다. 이러한 가능성이 용기와 끈기 및 도전으로 펼쳐질 때 신경정신의학의 장래는 밝다고 판단된다. 다시한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학회지 " 신경정신의학 "이 더 좋은 학술지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며 전체 학회 회원 여러분 및 간행위원분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Table 1. KoMCI 학술지가 많이 인용하는 KoMCI 학술지(3년 평균이 높은 학술지 10종)

학 술 지 명	창간 년도	3년간 발표 논문수	KoMCI2000		KoMCI2001		KoMCI2002		3년간			
			빈도	순위	빈도	순위	빈도	순위	합계	순위	평균	순위
대한안과학회지	1958	1,046	800	1	721	2	1,175	1	2,696	1	898.7	1
대한피부과학회지	1960	1,067	694	2	742	1	847	2	2,283	2	761.0	2
대한내과학회지	1949	630	693	3	508	5	471	4	1,672	3	557.3	3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1958	1,109	488	5	588	3	585	3	1,661	4	553.7	4
대한소화기학회지	1969	519	539	4	531	4	456	5	1,526	5	508.7	5
대한외고학회지	1959	639	483	6	440	6	389	7	1,312	6	437.3	6
소아과	1958	665	426	8	388	7	451	6	1,265	7	421.7	7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1958	717	379	12	379	9	358	8	1,116	8	372.0	8
대한마취과학회지	1968	813	477	7	336	11	302	11	1,115	9	371.7	9
신경정신의학	1962	336	409	9	364	10	305	9	1,078	10	359.3	10

중심 단어 : 학회지(신경정신의학) · 심사평가.

REFERENCES

1) 오병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발전계획: 개요. 신경정신의학 2002;41:583-584.
2) 남궁기, 이병욱.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단기 발전계획. 신경정신의학 2002;41:585-588.
3)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장기 발전계획. 신경정신의학 2002;41:589-591.
4) 한상완. 학회지 발전과 평가기준. 신경정신의학 2002;41:589-591.
5) 황호정. SCI 저널의 선정기준. 신경정신의학 2003;42:171-177.
6) 임정기. Korean Journal of Radiology의 SCI-Expanded와 Medline등재경험. 신경정신의학 2003;42:541-543.
7) 이동후. Index Medicus (Medline/PubMed) 학술지 등재요건. 신경정신의학 2003;42:669-682.
8)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영문잡지 'Psychiatric Investigation' 창간계획. 신경정신의학 2004;43:3-5.
9) 이덕우. 신경정신의학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및 계속평가. 신경정신의학 2004;43:148-150.
10) 이호영. 영문초록교정소감. 신경정신의학 2004;43:135-140.
11) 김동기, 한무영, 한혜리. 신경정신의학 2004;43:141-147.